

## 2007 WATER KOREA 성황리에 열려

180개 업체, 720개 부스 참가로 역대 최대 규모 자랑  
부스 마감 후에도 판매 문의 쇄도, 해마다 관심 증폭



지난해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경기도 고양시 KINTEX에서 열린 2007 WATER KOREA는 2006년에 이어 2년 연속 관람객 3만명을 돌파하는 등 개최 6년 만에 물산업박람회의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행사기간 동안 총 3만 329명이 전시장을 다녀갔으며, 이 가운데 공무원이 8,100명, 기업회원이 1,563명, 그리고 일반인이 6,500여 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WATER KOREA의 핵심 행사인 국제상하수도전시회가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올해에는 해외 7개국, 9개업체를 포함해 총 180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부스 규모도 720개에 달해 역대 최대를 자랑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부스 수 대비 56%나 급증한 것으로, 대다

수 업체들이 신제품 및 신기술 출시 시점을 전시회에 맞춰 만큼 공신력이 높은 시연의 장이 되었다는 평가다. 협회 정도영 상근부회장은 "전 세계 물시장이 석유시장 규모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향후 10년 이내에 국내 물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협회 모든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WATER KOREA를 더욱 내실화·국제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2008 WATER KOREA를 수도통수 10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시와 공동으로 오는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서울종합전시장(SETEC)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416명 배출

'제2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시험' 합격자 발표  
전문자격 갖춘 정수장 인력 확보, 물산업 육성의 중심에 서다

**환** 경부가 수도법 개정으로 2009년부터 정수장에 의무적으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배치되도록 한 이후, 지난 12월 1일 서울과 대전 시험장으로 나뉘어 '제2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시험'이 실시됐다. 1차 시험(객관식 필기)과 2차 시험(주관식 실기)이 동시에 치러졌으며, 1차 합격자는 응시인원 1,495명 중 797명(53.3%), 2차 합격자는 응시인원 2,050명 중 416명(20.2%)으로 집계되어, 제1회 시험 때보다 응시인원이 약 380명가량 증가하는 등 뜨거운 응시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합격자 중 지자체 수도 담당 공무원은 83.6%(347명), 그 외 학생 또는 민간기업 종사자가 16.4%(68명)를 차지하여 수도사업 종사자의 관심과 열의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도입 목적은 정수장 인력의 전문화를 통해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주고, 21세기 물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우수한 물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수도시설 운영요원 등의 관심이 한층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며, 합격자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교육 및 평가가점 부여방안 등 제도적인 지원책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시험은 연도별, 정수장 규모별의 무배치시기와 소요인원 등을 감안하여 올해까지 1,500명을 배출할 목표로 올해에도 2회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 시험은 국무총리실 국가자격통합 방침에 따라 금년부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된다. [☞](#)

